


**오늘의
게시판**
2006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

행사
8일
▲2006 광주비엔날레 개막식
=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.

▲광주·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=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, 홍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이 '치안환경과 경제비용'에 관해 강연.

▲제 123회 강진 다산강좌=오전 10시 30분 강진군 문화회관. 김철종 재정경제부 특구운영 1과 사무관이 '특구와 브랜드'라는 주제로 강연.

▲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충청·호남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순회 설명회=오전 2시 담양군 문화회관. 행정자치부 박재영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장 등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계획 및 균형발전 추진계획 체계 개편에 따른 협조 사항 전달.

▲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회의=8일 오전 9시

영암군 목포현대호텔, 청소년 홀스테이·관광·치어방류 등 수산교류 등 공동교류사업 추진 방안 협의 및 엑스포 유치 지지 등 논의. 9일까지 이를간.

▲제 502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=오후 4시 30분 장성군청 대회의실.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'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'이라는 주제로 강연.

▲전남도 친환경 5개년 계획안 공청회=오후 2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.

(9일)
▲2006 광산업의 날 행사=오전 10시 첨단체육공원 일원. 1부 체육행사·광산업체 직원 장기자랑, 오후 8시 2부 축제한마당 등으로 진행.

▲제 4회 목포사랑 은빛 갈치축제=개막식 오후 6시 40분 목포시 평화광장. 10일까지 이를간. 전국 갈치 낚시대회·7080주의 콘서트 등 행사.

▲다문화가정 가족 한마음 대축제=오전 10시 30분 영암군 실험체육관, 외국인주부 500명 등 다문화 가정 1천400여명 참가해 민속 의상 경연대회 및 민속춤·가족 어울림당 행사.

▲제 1회 진도군수배 클럽대항전 게이트볼 대회=오전 8시 진도초등학교, 16개팀 150여명 참가.

▲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흥사모 발대식=오후 2시 진도군 고문면 회동리 홍주 하우스. 오후 5시 30분 박범훈 중앙대 총장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흥사모(흥주를 사랑하는 모임) 발대식.

▲제 36회 토요민속여행=9일(토)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. '남도의 소리'를 주제로, 아강산조·남도민요·단막창극·관소리 등 공연.

▲토요 상설 문화공연=9일(토) 오후 3시 담양군 죽녹원 야외무대, 박강선의 포크송 공연.

▲제 2회 전국 기사·시조 낭송경연대회=9일(토) 오후 2시 담양군 남면 한국가사문화관. 일반부 24명·학생부 45명 등 69명이 참가해 겨루.

▲창작지원전 '김진화전'=17일까지 롯데하랑.

▲광주비엔날레 기념 '손아유 전'=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.

▲조강현 개인전=13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.

▲전남중등미술교류전=13일까지 메트로갤러리.

광산문화예술회관.

▲여린이 캐릭터 뮤지컬 '개구리 중사 케로로'=9일(토) 오전 11시·오후 2·4시, 10일(일) 오후 2·4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.

▲선클라비어 정기연주회=9일(토)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.

▲제 32회 토요민속여행=9일(토)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. '남도의 소리'를 주제로, 아강산조·남도민요·단막창극·관소리 등 공연.

▲토요 상설 문화공연=9일(토) 오후 3시 담양군 죽녹원 야외무대, 박강선의 포크송 공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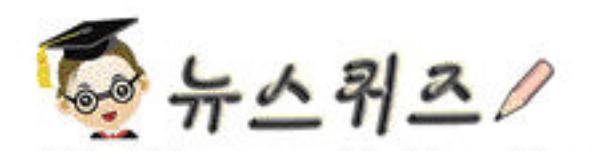
▲제 2회 전국 기사·시조 낭송경연대회=9일(토) 오후 2시 담양군 남면 한국가사문화관. 일반부 24명·학생부 45명 등 69명이 참가해 겨루.

▲창작지원전 '김진화전'=17일까지 롯데하랑.

▲광주비엔날레 기념 '손아유 전'=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.

▲조강현 개인전=13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.

▲전남중등미술교류전=13일까지 메트로갤러리.



28.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이 사람을 내정했습니다.

전임 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난달 7일 공식 사퇴한 지 25일 만으로,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. 현 정부 출범 후 6번째 교육부총리가 될 충북 청주 출신인 이 후보자는 누구일까요?

① 김신일 ② 김병준 ③ 이돈희 ④ 이해찬

참여 방법

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,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,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. (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)

보내실 곳

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-711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8일(음 7월 16일 庚子)

子
36년생 파도가 높으니 대고 예상된다. 48년생 가정의 힘은 식탁에서 나온다. 60년생 방풍립은 여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. 72년생 가게는 국가 경제로 통한다. 84년생 남을 높이 자신도 올라간다.
행운의 숫자 : 08, 37

丑
37년생 좋은 협력자를 만나 큰 도움을 받는다. 49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. 61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 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해야. 73년생 이웃을 살펴보라. 85년생 이상 보다 친구를 만나는 행운의 숫자 : 09, 36

寅
38년생 육십은 화를 부르니 소란대실 하자마자 50년생 모든 일은 불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죄신을 잘하라. 62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. 74년생 계획한 일은 잘 이루어지리나.
행운의 숫자 : 07, 40

卯
39년생 마음의 고통은 있으나 가정은 평안하다. 51년생 허락된 문서 민 조심하면 대손은 없다. 63년생 부모에게 이해하는 대화와 사랑스런 자녀를 살펴보라. 75년생 세상에 극복되려 않는 어려움은 없지만 행운의 숫자 : 21, 25

辰
40년생 가득 찬 참고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. 52년생 수하인과의 동업은 절대 금지하라. 64년생 간장과 위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. 76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겟다는 행운의 숫자 : 14, 38

巳
41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된다. 53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로다. 6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결정 난다. 77년생 보기 좋은 빅이 먹기 좋다. 89년생 꽃과 속이 꽉 차다.
행운의 숫자 : 17, 29

午
42년생 구사가 고통이나 소란으로 베풀리거나 세심하게 살펴보라. 64년생 천운에는 고를 스트리우나 나중은 편안히리라. 78년생 친구로 전진으로 꼭 성취될 것이다.
행운의 숫자 : 03, 45

未
43년생 삼사일연하면 미움은 없으리라. 55년생 옛 강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정이 솟아난다. 67년생 말다툼이 송사로 비화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. 79년생 애인이 불안하다.
행운의 숫자 : 05, 26

申
44년생 차 조심 사람조심, 56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. 68년생 이득한 보금자리이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. 80년생 자신과 가정, 가정과 직장사이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.
행운의 숫자 : 01, 35

酉
45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간다. 57년생 적장을 포로로 잡은 적이 큰 삶이 있을 수. 69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. 81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.
행운의 숫자 : 18, 32

戌
46년생 제사가 순조롭고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. 58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. 70년생 자녀가 빨리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. 82년생 고개를 숙여 광평을 한번 살펴보라.
행운의 숫자 : 04, 45

亥
47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. 59년생 사업이나 헛된 문서에 마음을 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. 71년생 과욕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. 83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다.
행운의 숫자 : 24, 25

www.cafe.daum.net/sajoo114 ☎ 011-632-6121



한국에서 첫 음반을 내고 활동에 나선 중국인 가수 장리인.

순식간에 형세역전 제9보(149~165)

白 허우석 5단
 黑 이강민 5단
 <광주광역시청A>

전보에서 흑이 ❶로 잡은 수는 사실 불필요한 수로

하면 보강해야 했다. 이 수가 또 백에게 기회를 준다.

허 5단은 상대가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백 ❶로 약점을 치르며 흑을 꾀롭힌다. 흑 149는 어쩔 수 없는 후퇴다. 이 수로 '참고도'의 흑 1 풀에서 이 5단이 급습해졌다. 처기는 2로 들어 4까지 흑이 매우 불안하다. 이 5단은 155까지 쓰라린 공배매움으로 겨우 백 돌을 잡았

으나 이 사이 백은 152까지 선수로 뜻밖의 소득을 거둔다.

바둑은 흔히 마라톤과 비교된다. 때로 대마를 떠려잡고 쉽게 이기는 일도 있으나 매우 드문 일이다.

시종일관 평상심을 유지해야 무사히 끝까지 점을 통과할 수 있다.

한순간의 방심으로 백이 156의 큰

곳을 차지하게 되어서는 형세역전이다.

이번에는 이 5단이 급습해졌다. 처기는 2로 들어 4까지 흑이 매우 불안하다. 이 5단은 155까지 쓰라린 공배매움으로 겨우 백 돌을 잡았

으나 이 사이 백은 152까지 선수로 뜻밖의 소득을 거둔다.

바둑은 흔히 마라톤과 비교된다.

때로 대마를 떠려잡고 쉽게 이기는 일도 있으나 매우 드문 일이다.

시종일관 평상심을 유지해야 무사히 끝까지 점을 통과할 수 있다.

한순간의 방심으로 백이 156의 큰

곳을 차지하게 되어서는 형세역전이다.

이번에는 이 5단이 급습해졌다. 처기는 2로 들어 4까지 흑이 매우 불안하다. 이 5단은 155까지 쓰라린 공배매움으로 겨우 백 돌을 잡았

으나 이 사이 백은 152까지 선수로 뜻밖의 소득을 거둔다.

바둑은 흔히 마라톤과 비교된다.

때로 대마를 떠려잡고 쉽게 이기는 일도 있으나 매우 드문 일이다.

시종일관 평상심을 유지해야 무사히 끝까지 점을 통과할 수 있다.

한순간의 방심으로 백이 156의 큰

곳을 차지하게 되어서는 형세역전이다.

이번에는 이 5단이 급습해졌다. 처기는 2로 들어 4까지 흑이 매우 불안하다. 이 5단은 155까지 쓰라린 공배매움으로 겨우 백 돌을 잡았

으나 이 사이 백은 152까지 선수로 뜻밖의 소득을 거둔다.

바둑은 흔히 마라톤과 비교된다.

때로 대마를 떠려잡고 쉽게 이기는 일도 있으나 매우 드문 일이다.

시종일관 평상심을 유지해야 무사히 끝까지 점을 통과할 수 있다.

한순간의 방심으로 백이 156의 큰

곳을 차지하게 되어서는 형세역전이다.

이번에는 이 5단이 급습해졌다. 처기는 2로 들어 4까지 흑이 매우 불안하다. 이 5단은 155까지 쓰라린 공배매움으로 겨우 백 돌을 잡았

으나 이 사이 백은 152까지 선수로 뜻밖의 소득을 거둔다.

바둑은 흔히 마라톤과 비교된다.

때로 대마를 떠려잡고 쉽게 이기는 일도 있으나 매우 드문 일이다.

시종일관 평상심을 유지해야 무사히 끝까지 점을 통과할 수 있다.

한순간의 방심으로 백이 156의 큰